

부품업체, 베트남 현지 투자 확대 인재·생산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삼성전기 베트남 법인 12억 투자
기술 분야 전공인재 중심 채용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생산 확대
기숙사 건립 등 인력 유치 나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부품 업체들이 베트남 생산 거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고객사 수요 대응이 맞물리며 베트남이 핵심 제조기지로 떠오른 가운데 비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최근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캐파(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베트남 생산 법인에 투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투자규모는 12억달러(한화 약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삼성전기는 앞서 베트남 외국인투자청으로부터 AI용 FC-BGA 생산 투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2024년부터 베트남

에서 FC-BGA를 생산해 왔으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FC-BGA 캐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투자 규모는 지난 2013년 베트남 법인 설립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LG이노텍 역시 카메라 모듈 생산능력을 베트남에서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하이퐁 생산법인 내 V3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연면적 15만m2 규모로 축구장 20개를 합친 크기다. V3 공장 가동으로 전체 카메라 모듈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2배 확대하기도 했다.

인력 채용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은 지난해 엔지니어 학부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적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전기 베트남 법인 등 삼성 계열사 정규직 인력을 선발했다.

LG이노텍도 지난달 베트남 법인의 글로벌 주문 물량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현지 인력 채용에 나섰다. LG이노텍 베트남 법인은 하이퐁시 당국에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사내 기숙사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 계획도 검토하며 인력 유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양사의 베트남 투자 전략 차이도 눈에 띈다. 삼성전기는 베트남을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 LG이노텍은 보조적인 생산기지 성격이 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부품의 적기 조달과 비용 절감 등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부가 제품인 FC-BGA를 중심으로 생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LG이노텍은 범용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베트남에 집중 배치하고 고부가 자율주행·로봇용 카메라 모듈은 국내 구미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원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2026년형 TV 전 라인업 AI 탑재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사용자 상호작용 '일상형 플랫폼' 목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용석우 사장이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026년형 TV 신제품 전 라인업에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하며 '인공지능(AI) TV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군뿐 아니라 보급형까지 AI를 전면 확대 적용해 TV를 단순 시청 기기를 넘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일상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15일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를 열고 ▲마이크로 RGB TV 'RH95·RH9G' ▲네오 QLED 8K ▲삼성 OLED 'SH95·SH90' ▲미니 LED ▲UHD 등 TV 전 라인업과 함께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 프로·더 프레임'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 ▲와이파이 스피커 '뮤직스튜디오 7.5' ▲올인원 사운드바 'HW-QS90H' 및 플래그십 'HW-Q990H'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

라이프스타일 제품군도 확장됐다. 삼성전자는 98형 '더 프레임'을 새롭게 추가해 초대형 화면에서도 예술작품 감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은 기존 27형~55형에서 85형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설치 제약을 줄였다.

/차현정 기자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통합 AI 플랫폼 '비전 AI 컴패니언'이다. 빅스비를 비롯해 퍼플렉시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동시에 탑재해 음성 명령만으로 콘텐츠 정보를 탐색하거나 시청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 중인 콘텐츠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TV 경험을 보다 능동적으로 확장한 점도 눈에 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용석우 사장은 "보다 완벽해진 AI 기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TV의 표준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단순한 디스플레이를 넘어 사용자의 일상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AI 일상 동반자'로 스크린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인니 등 아시아 공조사업 박차

HVAC 커넥트 2026

15개국 주요 HVAC 파트너 초청
국가·고객 특성 반영 솔루션 소개

LG전자가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사우스 지역인 아시아 주요 국가의 핵심 파트너를 대상으로 현지 맞춤형 냉난방 공조(HVAC) 솔루션을 소개하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오는 16일까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5개국의 주요 HVAC 파트너들을 국내로 초청해 'LG HVAC 커넥트 2026'를 진행한다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70여 명의 각국 핵심 파트너들은 LG전자 HVAC 제품을 현지 유통하고 물리적 설치까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기술 교류와 교육 관련 협업 등 다방



LG전자 직원이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가 적용된 LG전자의 멀티 V5 프로(MULTI V5 Pro)와 데이터 기반 통합 제어 솔루션 '버컨(BECON)'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면에서 협력 범위를 넓히며, LG전자 기업 간 거래(B2B) 및 HVAC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자리잡았다.

LG전자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지역 전략사업 오피존 ▲LG HVAC AI존 ▲신사업 존을 마련해 다양한

HVAC 제품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소개했다. 특히 지역 전략사업 오피존에서는 국가별·고객별 특성을 반영해 LG전자가 실제로 제안, 공급한 맞춤형 제품과 솔루션을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평택 칠러 공장, 프리미엄 가전 매장인 LG전자 플래그십 D5를 둘러본 파트너들은 초대형 칠러부터 공기청정기 등 가정용 제품까지 아우르는 LG전자의 HVAC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사장은 "글로벌 사우스 HVAC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지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방향성을 공유함으로써, 매출 확대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글로비스, 美 동·서부 물류거점 확충

물류센터·창고 등 공급망 대응력 강화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동·서부에 각각 대규모 물류 거점을 새롭게 확보하고 현지 공급망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분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와 조지아주 서버너에 각각 복합물류센터와 통합창고를 순차적으로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LA 복합물류센터는 축구장 2개 규모인 약 1만2000㎡다. 롱비치항과 공항에서 차로 약 25분 거리의 LA 도심에 위치해 해상·항공 물류를 연계한 복합운송 운영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췄다.

현대글로비스는 해당 거점을 통해 환적(트랜스로드), 항공, 보관·유통(W&

/양성운 기자

D) 등 물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직영 기반의 내륙운송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부 지역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관부터 배송까지 이어지는 End-to-End(E2E) 물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해상 연계 운영을 통해 공급망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해당 센터는 서부 지역 복합물류를 총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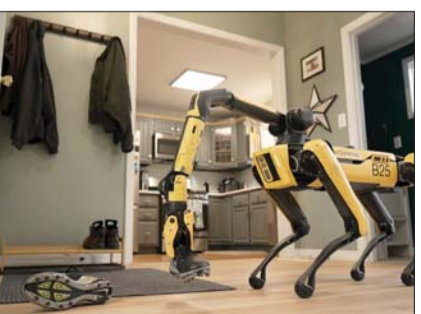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미국 동·서부 핵심 거점에 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지 거점 중심의 물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톤다이나믹스, 제미니 기반 '스팟' 영상 공개

단순 이해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톤다이나믹스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니를 기반으로 한 단계 진화한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공개했다.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보스톤다이나믹스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을 보면, 집안 칠판에 할 일 목록이 적혀 있다. 스팟은 탑재된 카메라와 제미니를 활용해 이를 스스로 확인하고 인지했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톤다이나믹스의 스팟이 바닥에 널브러진 신발을 집어 올리는 모습.

다. 명령에 맞춰 현관 앞에 널브러진 신발을 신발장에 정리하고, 빈 캔을 집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후 바닥에 있는 옷 집어 세탁 바구니에 넣고, 가구 아래 쥐뿔의 상태도 확인했다. 로봇 스팟이 칠판에 적힌 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아지 산책이 업무에 추가되자 스팟은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야외로 나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스팟은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한 주변 정보를 제미니로 분석, 해석함으로써 복잡한 환경 인식, 상황 판단, 작업 맥락 이해가 가능한 지능형 로봇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양성운 기자 ysw@

평균 만 44세... 외국인 등 다양성 높여

LG에너지솔루션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전문위원 선임하며 미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리더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핵심 인재 확보와 기술 리더십 강화에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신규 연구·전문위원 17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차세대 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끌 핵심 인재들을 전진 배치한 것이다.

올해 신규 선임된 연구·전문위원의 평균 연령은 만 44세로, 젊은 연구진 비중이 한층 확대됐다. 글로벌 인재와 여성 인재도 고르게 포함해 다양성도 높였다. 직무별로는 셀 개발 6명, AI 및 소프트웨어 4명, 생산 3명, 소재 2명 등으로 구성돼 미래 기술 수요를 반영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젊고 다양한 각 분야의 차세대 기술 리더들과 함께 단순한 셀 제조를 넘어 AI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